특별기고

〈第1回〉 環境保全에 関한 문예작품 銀賞 당선작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오 현 정
〈조치원여중 3년〉

우리는 지금껏 산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풍요로운 혜택속에서 삶을 누렸다. 사람들은 흔히 20세기의 과학이야말로 인간이 쌓아 올린 최대의 업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받고 있는 인간의 피해를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 풍요로운 삶에 묻혀 그러한 생각은 쓸 데 없는 헛소리라고 외면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 마저 위협한다면 이보다 심각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껏 고도의 산업 기술을 발달시켜 상당히 편리하게 살고 있다. 힘 안들이고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까지 인간은 지혜를 짜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산업의 진전이 있어 이젠 어디를 가나 차량이 물결을 이루고,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할수록 점점 우리의 환경속에서 그 풍성했던 푸르름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수 많은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 때문에 탁한 공기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이룩한 문화 여건으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웃음조차 나오지가 않는다.

지난 1952년 말, 안개의 도시 런던에서는 수일간 난방장치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 먼지등이 짙은 안개와 결합된 스모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무려 1만2천여명이 사망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속에서 무서운 환경오염이 이렇게 까지 무서운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니, 두렵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공해없는 대기를 만들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마저 오염시켜 버렸다. 각종 화학물질과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공장폐수와 가정하수 및 분뇨의 방류로 인한 오염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2학년때 수질오염에 대한 공부를 했었다. 사람들이 살포한 농약, 화학비료등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마침내는 사람의 인체에 까지 들어와 위험한 상태에 까지 이른다고 말이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한창 문제가 되었던 일이 생각난다. 한강의 더러워지고 썩어 이미 죽은 강이 된 까닭에 물고기들도 살 수가 없고 새들 또한 날아들지 않았던 일, 신문마다 텔레비젼마다 기형 물고기가 보도 되었고, 서울의 젖줄인 한강이 이제 쓸모없는 폐수에 지나지 않는다

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그 동안의 무관심했던 일들을 하나씩 돌이켜 반성을 했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도 금강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한창이었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 후로 많은 노력 끝에 다시 철새가 날아들고 물고기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다.

다시는 죽은 한강, 금강을 만들지 않아야 겠다. 오염된 물은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으며, 물고기들도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살 수 없게 된다.

1953년 일본에서 '미나마따'라는 괴이한 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유기수은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손발이 뒤틀리고 시야가 좁아지며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이 무서운 병으로 59명이 사망하고 무려 224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인지 수질오염의 심각한 문제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결코 여유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수질의 오염 문제가 시급한 것임을 알고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종말처리시설등을 하는 한편, 각지의 공장에 공해 방지 시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만 힘을 쓴다고 저절로 물이 깨끗해지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자연의 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만한 것을 스스로 찾아 제거하려는 문화 국민의 자세를 가져야 겠다.

그리고, 요즘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각종 쓰레기이다. 텔레비젼에서 자주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서울에서만도 쏟아지는 쓰레기 더미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이 나와 처리하기도 어렵고, 연탄재, 비닐, 빈병, 깡통등이 왜 그리도 많은지! 전국의 시 단위 지역에서 하루 평균 대형트럭으로 약 8천여 백대나 쏟아지고 있다니, 이거야 말로 쓰레기 홍수다.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쓰레기에 묻혀 버릴 것만 같다. 속히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도 국가시책에 호응하여 가정에서 버리는 폐품 및 쓰레기를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따로 분리 수거 하여야 겠다.

이 자연은 인간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터전이며, 다시 돌아가야만 할 곳이다. 이 자연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그리고 소음이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며 바램일 것이다. 때문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터전을 우리는 속히 원래대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자연은 무한정 우리에게 자비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자연을 훌륭하게 보전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을 때 자연도 우리에게 따사로운 은혜와 풍성한 혜택을 줄 것이다. *